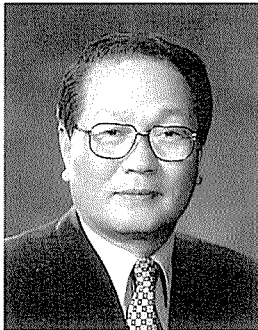


새천년의 출발선상에서

In the Starting Point of the New Millennium

이의구 / 대한건축사협회 회장
by Lee Eui - Koo



새해 새아침이 밝았습니다.

새해 희망찬 기운이 회원 여러분께 축복으로 내려지길 기원합니다.

친애하는 회원 여러분 !

신년마다 늘 새로운 다짐을 하지만 올해엔 그 무게감이 더 크게 느껴지는 것이 대망의 21세기가 시작되는 해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더욱이 금년은 우리 건축사와 건축 그리고 건축계의 미래에 있어 매우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여 각오를 더욱 새롭게 합니다.

오늘날 세계 경제구도는 서구 선진국이 주도하는 WTO에 의해 재편되어 가고 있으며 이로 인해 건축분야에도 새로운 체제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특히 가속도가 붙은 전문직서비스시장 개방 및 자격상호인정에 관한 국가간 협상은 각국 건축계에 구조변화라는 거센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어, 우리 역시 이러한 변화의 돌풍을 비켜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가하면 국내상황 또한 국민의 건축에 대한 인식수준 향상과 그에따른 수요의 다양성으로 인해 건축물의 경제·문화적 가치의 극대화는 물론 건축 기술의 선진화를 요구받는 사례가 크게 늘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이같은 상황들은 올해가 우리 건축과 건축문화의 장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임을 예고함과 동시에 향후 우리 건축계가 지향해야 할 미래의 진로를 명백히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회원 여러분 ! 모름지기 일년지계는 원단에 있다 했습니다.

이미 우리는 새천년의 시작에 앞서 향후 우리의 건축문화를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활발히 벌여왔으며, 이를 통해 질곡의 과거를 거울삼아 일신하여 새로운 역사를 이룩해야 한다는 공동인식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지금 눈앞에 펼쳐진 21세기 문화지식산업의 시대는 이 시대 건축문화의 표상 창조라는 영원한 과제와 함께 새로운 가치관으로 무장된 능력있는 전문직능인들을 요

구하고 있습니다. 비록 최근의 건축계 안팎의 여러 지각변동 요인들이 우리 앞날에 짙은 안개를 드리우고 있어 방향설정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첫단추부터 정확히 끼운다는 자세로 변화의 흐름에 맞춰 새천년의 단계적 목표와 진로를 설정해 나간다면 새시대를 우리의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표만 거창하고 실천계획이 빈약하거나 의지가 박약하면 얼마 못가 다시금 타성에 젖어 들고 자신도 모르게 매너리즘에 빠져들 수도 있는만큼 우리가 획구하는 목표에는 확고한 의지와 실천전략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친애하는 회원여러분! 지난 한세기 우리 건축설계업계는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과 국민 주거문화 창달에 괄목할만한 기여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새출발을 다지는 지금은 과거를 뒤돌아 보는 것 이상으로 미래의 목표와 진로 그리고 과제가 무엇인지를 점검해 보는 자세가 더 중요할 것입니다. 사실 무한경쟁시대로 대변되는 새시대에 우리가 풀어야 할 일들은 너무나 많고, 특히 우리 건축설계의 선진화를 향한 길은 아직도 멀게만 느껴집니다. 따라서 협회는 새천년의 최우선 목표를 건축사 회원의 자율적·창의적 창작활동 지원과 우리 건축설계의 경쟁력 제고로 정해 이를 위해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특히 건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건축설계를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성장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다음의 과제들을 실천해 나갈 것입니다.

첫째, 건축설계업계가 제도적 보호 틀에서 벗어나 시장경제원리와 개방체제를 기초로 경쟁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를위해 단위 설계조직의 전문화 및 상호협력체계화를 적극 유도해 나가겠으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경쟁이 이뤄질 수 있는 안정된 시장경쟁체제를 정착시켜 향후 우리건축이 세계시장 진출에 필요한 경험을 국내 시장에서 쌓아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건축설계업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차원의 실질적 지원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건축관련 제도를 시장경제원리에 맞도록 개선·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건축문화 저변확대와 건축사의 사회적 위상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지난해 우리 협회의 불참으로 논란이 됐던 한국건축문화대상을 대신해 순수 민간주최의 설계 부문 건축시상제도를 새로이 제정, 진정한 건축계의 제전으로 발전시킴과 동시에 신인과 학생 등 일반의 폭넓은 참여를 유도해 건축의 저변확대를 불러일으키겠습니다. 또한 건축사의 사회적 역할을 널리 알려 인지수준을 높이고 타 전문분야와의 교류 확대를 통해 사회발전에 이바지하는 전문직업인으로서의 건축사의 공익활동 이미지를 부각시켜 나가겠습니다.

셋째, 건축관련 정보제공 등 회원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하고 건축사의 지적창작행위가 보호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정부는 규제완화를 위해 종전 건축사사무소등록제의 신고제 전환, 설계도서신고제 폐지, 협회 설립 및 회원가입 자율화 등을 주요골자로 건축사법을 개정, 곧 공포할 예정입니다. 이로인해 자칫 건축계가 분할되고 이합집산하는 등 적지않은 혼란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그러나 협회는 우리 건축사 회원들이 어려운

시기를 함께 헤쳐 나갈 수 있도록 회원서비스를 강화해 더욱 결속력을 다져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해외에서 활동중인 건축인들을 주축으로 한 해외통신원제를 활성화해 급변하는 세계건축계의 동향을 보다 신속히 수집, 제공함으로써 협회의 정보창구 기능을 강화하고 또한 건축자재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구축, 산재돼 있는 각종 건축자재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분석·정리해 회원은 물론 각 현장에서 실시간에 원하는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원사에 대한 전산·정보제공체제를 확충하고 각종 전산프로그램을 제공, 회원사의 업무전산화를 지속 추진할 것입니다. 이와함께 그동안 우리사회에서는 건축설계와 같은 건축사의 지적창작행위를 서비스차원으로 인식해온 경향이 있어 그에 따른 보상이나 보호장치가 미흡했던 만큼, 곧 폐지될 설계도서신고제를 대신할 수 있는 건축분야의 새로운 저작권보호 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넷째, 협회의 UIA가입을 통해 국가간 교류와 협력은 물론 국제사회에 대한 우리의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세계 각국은 자국중심체제에서 탈피해 세계화, 개방화로 대두되는 국제사회의 신질서를 쫓고 있습니다. 경제구조 또한 이해관계에 따라 대륙별 경제블록화 추세가 심화되고 있으며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역사적 배경이나 이념의 차이를 뛰어넘어 새로운 동맹관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서구 선진국이 주도하는 WTO에 의해 세계 건축체제가 재편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사회에 우리의 입장과 주장을 관철시키는데 있어서는 실무건축사들의 단체인 우리 협회의 역할과 기능이 중요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협회는 UIA가입을 통해, 향후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간 교류 및 협력에 있어 우리 건축사의 의무와 권리를 대변하고, 나아가 한국건축과 건축계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시켜 나갈 것입니다.

협회는 이밖에도 세계화시대 국제적 자격기준에 맞는 건축사 양성을 위해 학계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기성 건축사에 대해서는 실무훈련과 계속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힘써 어떠한 경우에도 자격기준 문제로 우리 건축사가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회원들의 업무상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공제사업 역시 철저한 사업준비를 거쳐 빠른 시일내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계속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회원 여러분! 이미 우리 건축은 국내 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그 무한한 가능성과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새천년 새출발에 임함에 있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지금까지 쌓아온 저력과 그 가능성을 현실에 구현하는 것으로서 지난 세기동안 일구어 온 탄탄한 기초 위에 단계적 실천노력을 더해 우리가 회구하는 목표들을 하나씩 성취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새천년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21세기 건축패러다임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회원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동안 여러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고결하게 가꾸어 온 우리 건축사의 긍지가 보람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다함께 올해의 풍성한 수확을 목표로 한국건축의 새바람을 일으킵시다.

올 한해 회원 여러분의 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시길 기원하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